

아베 고보(安部公房) 문학에 있어서의 <가족>

—<무능력한 아버지> 상(像)을 중심으로—

이 정 희*

(e-mail : leejh@uu.ac.kr)

目 次

1. 들어가며
 2. 두 아버지—시골 아버지와 도시 아버지—
 3. 아버지를 살해하다—「새끼줄(なわ)」을 중심으로—
 4. 아들을 이용하는 아버지
 - 4.1 「하늘을 나는 남자(飛ぶ男)」에 나타난 아버지
 - 4.2 「여러 아버지(さまざまな父)」에 나타난 아버지
 5. 맺으며
-
-

1. 들어가기

일본은 2000년도에 들어서자 출판업계에 특이한 바람이 불었다. 서점가에는 ‘가족’이라는 타이틀의 자서전적인 소설에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형제’ 등의 제목을 한 서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풍경은 일본 출판업계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으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왜, 21세기 길목에서 가족을 이야기 하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를 회상했던 것일까.

아마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족에 대한 회고의 바람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제 일본은 지난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지도 모른다.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경제성장을 내세워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일본 경제가 쇼와(昭和)시대가 막을 내

* 위덕대학교 일본어학부 부교수, 일본현대문학전공

리자 1990년 후반부터 버블 경제로 장기 경기침체에 들어갔다. 196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산업전선에서 젊음을 바친 세대가 1990년대에 들어 하나 들쭉 정년퇴임을 맞게 되었다. 막상 정년퇴임을 하고 보니 일본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경기가 계속되었다. 그때서야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회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은 아닐까. 이미 초로의 몸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또는 어머니, 형제들을 부르면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았을까.

일본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가족 집단의 이미지는 근대 이후 자연스럽게 형성된 호주의 지위를 국가의 천황에 비유한 ‘가족국가관’일 것이다. 이 ‘가족국가관’에서는 가족은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경제적 단위이며, 여기에서부터 적절한 분업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가족에 대한 정서적 애착관계가 국가의 충성심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가족국가관’의 붕괴가 실제 생활 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난 것이 소설 속에서 전개되는 가족 모습이다. 메이지문학(明治文学)에서도 이미 가족 해체 또는 붕괴가 그려지고 있고, 지금은 ‘가족국가관’ 역시 그 의미가 퇴색하고 말았다.

아베 고보(安部公房;1925~1993) 문학에 있어서의 ‘가족’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아베 고보 문학에 가족다운 가족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베 고보 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가족은 ‘침입가족’이다. 1951년에 발표한 『침입자(闖入者)』에 등장한 ‘침입가족’은 신사(아버지)와 그의 부인, 할머니, 그리고 20세 전후의 장녀·장남에서부터 아기를 안은 소녀에 이르기까지 모두 합해서 9명이나 되는 대가족이다. 이 일가족이 혼자 사는 독신 남성 아파트에 진입해서 벌어지는 해프닝으로 이야기는 전개되지만, 주인공 남성은 이 일가족에게 지배당하고 결국에 가서는 독살 당하고 만다.

이 ‘침입가족’은 진짜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결성된 가족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새로운 스타일의 가족일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TV 드라마에서 <불량가족>이 연속 방영되어 가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아베 고보 작품에 나타난 ‘아버지’의 이미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아베 고보 연구에 있어서 ‘아버지’에 대해 언급한 논문의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아베 고보 작품에 종종 나타나는 힘없는 아버지 상(像)에 대한 고찰은 아베 문학 연구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2. 두 아버지—시골 아버지와 도시 아버지—

아베 고보의 소설에 그려진 가족은 부자지간 또는 편모슬하인 경우가 많다. 즉 어느 한 쪽이 결손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자(母子)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소설 내용이 전개되는 경우는 드물고, 이에 반해 아이가 없는 부부, 혹은 혼자 사는 독신 남성, 부자(父子)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설정이 많이 보인다. 또한 도시의 발달과 변모에 맞추어 새로운 스타일의 가족관계가 그려지기도 했다.

초기 단편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대부분 비정하고 무능력한 아버지이다. 예를 들어 『벽-S.카르마씨의 범죄』에서 주인공 카르마씨의 가족으로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은 아버지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두 사람으로, 한 사람은 시골에 살고 있을 아버지이고, 또 한 사람은 어변교수로²⁾ 자칭하는 도시에 사는 아버지이다.

①“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 꼭 가야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고, 살짝 고개를 옆으로 흔들 뿐이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문의 손잡이를 돌렸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문을 열고 이미 복도로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뒤로 조용히 문이 닫혔다. “아버지!” 아버지는 가버리고 말았다. “저 사람은 분명 가짜 아버지야”³⁾

②역시 거대한 숫돌을 소중하게 받들고 들어온 남자는……“아버지!” 그는 그만 자신도 모르게 외치고 있었다. 그건 분명히 아버지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무서운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는 말했다. “아버지가 아니다. 공과 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나는 부단장인 어변교수로 순수도시주의자다.”(p.168)

인용 ①의 시골에 사는 아버지는 카르마씨가 이름을 잃고 절도 현행범으로 재판에 송부되어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도망쳐 집에 돌아왔을 때 방문을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카르마씨에서 아버지다운 태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빨리 떠나려고만 하는 장면이다. 이러한 아버지를 보고 카르마씨는 ‘가짜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반면, 인용 ②의 도시에 사는 아버지는 카르마씨의 가슴에서 성장하고 있는 벽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의 부단장 어변교수로 등장한다.

시골 아버지는 아들인 카르마씨가 곤경에 빠져있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2) 이 어변(urban)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도시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하겠다.

3) 여기에서 인용한 텍스트는 아베 고보 저, 이정희 역 『벽』(위덕대학교출판부, 2001)을 사용하였다. p.121.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만 한다. 도시 아버지는 카르마씨의 가슴에 생성된 벽을 조사하기 위해 카르마씨의 가슴을 칼로 자르려는 냉철한 과학자로 그려져 있다. 이렇듯 두 아버지를 모두 부성애가 없는 비정한 아버지로 그리고 있다.

시골/도시의 대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이 가능하겠지만, ‘아버지’ 상 조형만 놓고 생각해 볼 때, 시골에 살고 있는 아버지는 도시에 살고 있는 아버지이든 이미 부자간의 관계가 붕괴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부자간의 설정의 배경에는 아버지가 지녀야 할 권위와 포용력의 결여에 의한 ‘아버지다움’의 상실일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가족의 붕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대비되는 두 아버지의 설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아베 고보의 처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길 끝난 곳의 이정표에(終りし道の導べに)』(1948)에서는 주인공이 일본을 떠나서 만주로 향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고향’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아베 고보는 이 작품에서 ‘생의 고향’과 ‘존재의 고향’으로 고향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고 있다. ‘생의 고향’은 작가가 태어나 곳이고, ‘존재의 고향’은 작가를 지금 여기에 있게끔 한 곳일 것이다. 아마도 아베 고보는 이러한 두 고향을 ‘일본’과 ‘만주’로 대비시켜 생각했을 것이다. 일본에서 태어났으므로 ‘생의 고향’은 일본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자신을 이곳에 있게 한 ‘존재의 고향’은 만주인 셈이다. 그러나 아베 고보 자신은 정작 고향을 갖지 못한 인간이라고 했다.

③내가 자란 봉천은 살풍경한 만주 중에서도 특히 살풍경한 도시다. (중략) 그래도 그 살풍경한 풍경조차도 마음을 끄는 것은 역시 고향이기 때문일까. 분명히 고향에 해당하는 곳이다. 그러나 고향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은 왜일까. 나의 아버지는 개인적으로는 평화로운 시민이었다. 그러나 일본인 전체는 무장한 침략이민이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우리들은 봉천을 고향이라고 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달리 고향이라고 부를 만한 곳도 없다. 봉천에 있을 때에는 일본 꿈을 꾸고 일본에서는 봉천 꿈을 꾸다.⁴⁾

④나는 도쿄에서 태어나 옛 만주에서 자랐다. 그러나 원적은 홋카이도로 그곳에서도 몇 년간 생활한 경험이 있다. 즉 출생지, 출신지, 원적 이 세 곳이 모두 다른 것이다. 덕분에 약력을 쓸 때 망설여진다. 다만, 본질적으로 고향이 없는 사람(고향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내 감정 속에 흐르고 있는 일종의 고향에 대한 증오도 의외로 이러한 배경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⁵⁾

4) 「奉天—あの山あの川」(『安部公房全集004』新潮社, 1997). p.484

5) 佐々木基一編 『作家の世界—安部公房』 番町書房, 1978, p.154

위의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베 고보는 자신을 본질적으로 고향을 갖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보이는 고향에 대한 증오는 고향에 대한 동경을 역설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인용 ③에서 “봉천에 있을 때는 일본 꿈을 꾸고 일본에 있을 때는 봉천 꿈을 꾸다”는 부분이 하나의 가식 없이 그 심경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역시 일종의 고향에 대한 동경일 것이다. 그러나 아베 고보는 스스로를 무국적자(無国籍者)라고 하여 평생을 뿌리 없는 풀과 같은 기분으로 살았을 것이다.

이러한 두 고향을 두 아버지에게 대비시켜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 어느 고향이 자신을 지탱해 주지 못한 것과 같이, 작품 속의 두 아버지 역시 주인공 카르마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아버지, 또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아들을 도와주지 않는 비정한 아버지인 것이다.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만주국, 이 중 만주국은 일본 패전과 함께 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춘 나라이기도 하다. 게다가 두 나라는 한쪽은 지배민족이며 또 다른 한쪽은 피지배민족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설 속에 두 아버지를 대비시켜 부자관계의 붕괴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3. 아버지를 살해하다.

— 「새끼줄(なわ)」을 중심으로—

아버지를 없애는 이야기는 소설의 한 모티브로서 자주 보이는 구성이다. 특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인해 아들이 아버지를 적대시하며 살해한다는 이야기는 지금은 이미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소설 구성상 어린 딸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하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 아이누족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아버지를 살해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필자의 흥미를 끌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결과는 비극이지만 구원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아이누족의 삶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⁶⁾.

6) 아이누족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아버지 살해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모두 사망하게 되자, 한 어머니가 신에게 딸을 보살피 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 기도를 들은 신은 아버지로 변해 딸을 보살피게 되었다. 실은 이 아버지는 사람을 잡아먹는 신이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딸이 성장하자 잡아먹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알게 된 딸이 아버지를 오두막에 가두고 불을 질러 살해하고 만다. 그런데 어느 날 꿈 속에 아버지가 훌륭한 옷을 입고 나타나 "네 덕분에 나는 사람을 잡아먹는 죄를 짓는 것에서 벗어나 지위가 높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고 말했다.

아베 고보의 수많은 단편 중에 아버지를 살해한다는 내용의 소설이 있어서 주목하고 싶다. 1960년 8월 「군조(群像)」에 발표한 「새끼줄(なわ)」이 바로 그것이다.

⑤ 먼저 로프를 아버지 목에 감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그리고 나서 다음은 강아지를 목 졸랐던 그 요령으로 하면 된다. 한 쪽 끝을 기둥에 묶고, 둘이서 함께 잡아당기는 거다. 그런데, 기둥과 아버지 목 위치가 너무 안 맞는다. 요를 통제로 끌어당겨 겨우 적당한 위치로 바꾸어 놓았다. 로프 끝을 애써서 기둥에 묶어놓았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갑자기 몸을 뒤척였다. 줄이 헐거워져 다시 고쳐 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몸을 뒤척이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자,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두 사람은 호흡을 가다듬고 로프 끝에 전신의 무게를 걸었다.⁷⁾

위 인용문은 어린 두 딸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장면이다. 작품 속에서 아버지는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어린 두 딸과 함께 죽으려고 한다. 딸의 나이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큰딸이 열 살이나 열한 살 쯤 되었고 작은 딸은 여덟 살이나 아홉 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딸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죽으려면 아버지만 죽으라고 한다. 이에 아버지는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죽을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다가 딸아이가 갖고 있던 100엔을 자신의 현 구두 한 짝과 바꿔치기 해서 빼앗아 모터보트 경기장으로 간다⁸⁾.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온 두 딸은 잠자고 있는 아버지를 교살하고,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지폐와 동전 중에 100엔만 집어 들고 현 구두를 아버지 머리맡에 두고 나오는 데에서 소설은 끝이 난다.

당장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죽으려 했던 아버지는 딸아이가 갖고 있던 100엔을 보자 그것을 빼앗아 모터보트 경기장으로 간다는 장면 설정에서도 무능력한 아버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열 살 전후의 어린 두 딸의 설정과 ‘어머니의 부재’일 것이다.

아버지를 살해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아버지의 모습과 위치 그리고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아버지의 살해자로서 어린 딸을 설정했을 것이다. 어린 딸들은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보다는 빼앗긴 100

그 후 이 신은 딸의 수호신이 되어 딸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 딸은 아버지를 능가해서 성장하면서 상징적으로 아버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죽은 아버지는 수호신이 되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이야기 일 것이다.

7) 『安部公房全集012』新潮社,1998, p.252. (번역은 인용자)

8) 당시 모터보트 경기는 지금의 경마와 마찬가지로 운만 좋으면 어느 정도의 돈을 손에 넣을 수가 있었다.

엔을 되찾기 위해 아버지를 없애려 한 것이다. 마치 강아지를 목 졸라 죽인 것처럼 죄의식과는 무관하게 그리려 했다. 어린이들 세계에서는 자신의 소유인 100엔을 빼앗아간 아버지, 같이 죽으려고 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아니 오히려 지극히 현실감이 있는 설정이다. 어쩌면 당시 100엔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한 실제 사건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린 딸들을 책임지고 보살피고 양육하려는 의지가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재는 당시 사회의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어머니 역시 무능력한 남편으로 인해 가족을 포기하고 행방을 감추었을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은 소설 속이 아니더라도 현실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었다. 1960년대의 사회상을 나타내는 키워드 중에 ‘실종’을 들 수 있는데, 소설 『새끼줄』에서 볼 수 있는 ‘어머니의 부재’는 ‘어머니의 실종’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어느 날 시장 보러간 어머니가, 돈 벌러 간 어머니가 저녁 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었던 것이다.

한편, 안정된 수입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마이 홈’의 꿈의 실현과 자동차 뒤에 자녀들을 태우고 트렁크에는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서 소풍을 떠나는 가족들 모습은 하나의 풍요의 상징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⑥ 「새끼줄」은 「막대기」와 같이 오랜 옛날부터 인간의 「도구」의 하나였다. (중략) 「새끼줄」과 「막대기」는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다. 지금도 그들은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모든 거주공간에 들어가 정착해서 살고 있다.⁹⁾

위 인용은 『새끼줄』의 맨 마지막 부분이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새끼줄’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고 있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우선 같은 공간에 살며,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는 집단을 의미하는 듯하다. 모든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의인화 시키는 것은 아베 고보의 초기 단편소설에 나타나는 한 특징이기도 하다.

4. 아들을 이용하는 아버지

4.1 「하늘을 나는 남자」에 나타난 아버지

아베 고보의 유고작 『하늘을 나는 남자(飛ぶ男)』(1993)에는 두 작품 「하늘을 나는 남자」와 「여러 아버지(さまざまな父)」라는 제목의 소설이 들어있다.

9) 『安部公房全集012』新潮社, 1998, p.253.

이 두 작품은 일종의 움니버스 형식의 연작으로 볼 수 있지만, 미완으로 끝났기 때문에 스토리 전개상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특히 「여러 아버지」에는 제목 그대로 다양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품 역시 미완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떠한 아버지 상을 그리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단지, 현재 발표된 「여러 아버지」에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아버지가 그려져 있다.

먼저 「하늘은 나는 남자」를 살펴보면, 이 작품에는 초능력을 가진 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아버지가 등장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고 도망한 아들(소년)이 이복형인 호네(保根)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하늘을 날며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⑦“호네선생님 택이죠.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니 무엇을?” “쫓기고 있어요.” “누구한테?” “아버지에요. 뻘하잖아요.” (중략) “아버지라니, 누구니?” “말했잖아요. 우리들 이복형제라고. 그 작자 나를 미끼로 돈을 벌려고 해요.” “자네, 몇 살?” “22살……” “물렀나, 아버지는 상습적인 사기꾼이라는 것을…….”¹⁰⁾

아버지는 지금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원래 25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특허사무소 변호사로 신용이 두터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버지에게는 동거중인 34세의 여자가 있고, 원래 부인이 2명이 있다. 아버지로부터 도망 중인 아들 소년은 2살 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지냈는데, 그에게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염력만으로도 스푼을 구부릴 수 있는 초능력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날 수도 있다. 이 소문을 들은 아버지는 20여년 만에 아들 앞에 나타나 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버지는 한 온천마을에서 소위 엔터테이먼트 회사 사장을 칭하고 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계획을 간파하고 아버지로부터 도망한 것이다.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이다. 돈을 모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인 것이다.

⑧“아버지란 작자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 그 작자 나를 진짜 초능력자라고 떠벌이고 다녀.”(p.18)

⑨“아버지는 바보. 나를 구세주라고 불러. 견딜 수 없단 말야.” (중략) “아버지의 진수(珍獸) 대포획 작전이 시작되었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쫓아오는 쪽이 3명, 그 중에 한명은 프로 사립탐정이라”(p.42~43)

10) 『飛ぶ男』新潮社, 1993. p.12~14

⑩“아버지는 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이거나봐. 그런데 내가 그런 실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기껏해야 구경꺼리 정도는 되겠지. 물론 한 때 화제의 인물이 될지도 모르지.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사기꾼으로 몰리겠지. 그리고 계속 가다보면 그 끝은 영혼치료사, 사람이 몰리면 신흥종교의 교주……”(p.69)

‘진수(珍獸)대포획작전’은 소년의 초능력을 진짜로 믿고 있는 아버지가 소년을 찾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 하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소년은 자신의 초능력에 대해서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미끼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데에 저항감을 갖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소년의 초능력이 트릭이든 상관없다. 설령 트릭이라고 해도 초능력자로 내세워 나중에는 ‘신흥종교 교주’로 떠받들 생각이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현대사회의 한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가 복잡하게 진행됨에 따라 그 사회의 윤곽은 애매해져 보인다. 게다가 사회의 변화는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민중들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투명성에 의해 막연히 불안감이 조성되어진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민중 심리에 의해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하는 인물의 출현을 바라게 된다. 소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사회가 만든 민중 심리인 것이다.

이 사회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미래를 훤히 내다 볼 수 있다고 믿으며, 복잡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희박해진 민중에게 괴기한 세계관을 주입시켜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안겨준다. 그러한 인물에게 민중들은 끌리게 되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민중 심리를 이용해서 아들인 소년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물론 소년을 뒤에서 조정하는 것은 아버지다. 민중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속임수를 써서라도 하고 싶다는 이야기다. 참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아버지의 모습이다.

4.2 「여러 아버지」에 나타난 아버지

다음으로 「여러 아버지」를 살펴보면, 역시 제목답게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다른 작품보다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⑪아버지의 행동은 질릴 정도로 정확하고, (중략) 극단적으로 과묵해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준적이 없다. 내가 몇대로 철도 관계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도 그 지나치게 정확한 행동양식 탓일 것이다. 손목시계, 회중시계, 작은 탁상용 시계 등 항상 3개 이상의 시계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매일 아침 라디오 방송 시보에 맞추어 시계를 맞추는 일이 습관화 되었다. 하루에 3초 이상 틀리면 기분이 상하고 만다.(p.111)

⑫아버지 표정에 언제나 처럼 감도는 매정한 기운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중략) 어머니가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저녁은 언제나 아버지가 도시락을 사 가지고 온다. 꽤 오래된 이야기 이지만, 죽었는지 가출했는지 알 수가 없다. 언젠가 한번 아버지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처음으로 얻어맞았다.(pp.112~113)

⑬“이 상자 하나는 아버지가 갖고, 하나는 네게 준다. 10여년 전에 어느 골동품가게에서 포커로 등쳐 빼앗은 약이지만 말야.” “약?” “지금으로 말하면, 초능력 약이라고나 할까……하나는 투명인간이 되는 약이고, 또 하나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약이지……나라면 어느 쪽이 좋지?”(p.114)

⑭“그런데 왜 나한테 주는 거지? 아버지는 둘 다 갖고 싶으면서 말야” “그거야 둘 다 갖고 싶지. 그렇지만, 아들이잖아.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하나도 없어서……용서를 구하는 뜻에서일까.”(p.115)

위 인용 ⑪, ⑫에서 아버지의 성격과 가족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역시 보통 아버지 모습과는 어딘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시계를 3개씩 몸에 지니고 다니는 아버지, 매일매일 시계의 시간을 정확히 체크하는 아버지. 그래도 어머니가 없는 아들을 위해 항상 식사를 챙겨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래도 어딘가 리얼리티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보이는 아버지의 특징으로는 신문을 볼 때 1면은 사선으로 재빨리 훑어보고, 다음은 사망기사란을 꼭 본다는 점이다. 이 사망기사란을 보면서 병명과 연령과의 관계를 꼭 짚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인용 ⑬, ⑭는 「여러 아버지」의 핵심 내용으로 초능력 약이 등장한다. 결국 아버지는 투명인간이 되는 약을 마시고 투명인간이 되고, 아들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약을 마시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초능력을 지니게 되는 부분에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야기 전개상으로 볼 때 「여러 아버지」가 먼저 오고 「하늘을 나는 남자」가 그 뒤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¹¹⁾. 그러나 1994년 단행본으로 나온 『하늘을 나는 남자』에는 「하늘을 나는 남자」가 먼저 배치가 되고 「여러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어져서 배열되어 있다.

여기서 약을 먹고 투명인간이 되는 과정을 보면 영화 <할로우맨>¹²⁾을 연상시킨다. 「여러 아버지」에서 손이 없어지고 얼굴 머리카락이 없어지는 과정을 그린 부분과 영화 <할로우 맨>에서 첨단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현한 투명

11) 「여러 아버지」의 구성을 보면 제1화에서 제6화로 나누어져 있는데 마지막 제6화가 ‘하늘을 나는 남자’로 되어 있다. 이 제6화 ‘하늘을 나는 남자’의 첫 부분은 「하늘을 나는 남자」의 시작 부분과 이야기 전개가 비슷하다.

12) 폴 베히벤 감독 ‘The Hollow Man’ 2000년작

인간의 변신 장면이 너무나도 흡사하다.

왜 「여러 아버지」의 아버지는 먹는 초능력 약으로 투명인간과 하늘을 날려고 했을까. 먼저 약을 먹고 투명인간이 된 아버지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나머지 약을 먹을 것을 강요한다.

⑮“믿기지 않지. 그렇지만, 시험해 보는 것은 어때. 잘하면 이것으로 가난하고는 결별이다.”(p.116)

(16)“하늘을 나는 사람과 투명인간이 손을 잡으면 천하무적이지 않느냐”(p.123)

위 인용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초능력 약을 먹을 것을 강요하는 이유다. 초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황당무계한 이야기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처한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럼, 이러한 ‘아버지’의 이미지는 어디에서부터 형성된 것일까.

초기 작품인 『벽-S.카르마씨의 범죄』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다움’의 상실에서부터 기인해서 유고작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아버지다움’의 상실은 아버지에 대한 불신감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불신감은 어쩌면 전쟁 중에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비겁한 아버지들에 대한 복수심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바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아버지 상(像)의 이미지에는 아베 고보의 뇌리에 새겨진 만주체험이 중첩되어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만주국, 비교적 풍요로웠던 식민지에서의 생활도 일본 패전과 함께 붕괴되어 아베 고보의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초등학교 시절, 일본인 교사—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에 의해 오족협화(五族協和)의 이념을 고스란히 믿고 자란 소년 아베 고보는 일본 패전 후 전쟁에 의해 파괴되고 황폐해진 ‘일본’의 현실을 보고 이 모습이 아버지가 믿고 건설한 국가였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파라다이스였을까 하고 깊은 회의에 빠져 강한 불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만주체험과 패전체험을 몸소 겪은 아베 고보는 그동안 그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던 ‘국가’와 ‘아버지다운 것’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아버지 상(像)의 해체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아베 고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소위 부정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이로 인해 아버지의 이미지는 초기 단편 소설에서부터 유고작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무능력한 아버지’로 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5. 맺으며

작가 아베 고보의 생육사를 놓고 볼 때 ‘아버지’의 이미지는 그의 ‘만주체험’에서 그 원풍경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다. 아베 고보는 1945년 일본 패전 당시 도쿄대학에 휴학계를 내고 고향인 만주 봉천(奉天, 현재의 심양(瀋陽))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패전을 맞이했다. 아베 고보는 만주 봉천에서 당시 개업의로 활동하고 있던 아버지를 도와주었다. 그러다가 그해 겨울 발진티프스가 유행해서 그 진료를 담당하다가 감염되어 아버지는 사망하고 만다. 일본의 패전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아베 고보는 자필 연보에 다음과 같이 그 심경을 이야기 하고 있다.

8월이 되어 갑자기 전쟁이 끝났다. 문득 세계가 빛으로 덮여 모든 가능성이 일시에 물려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이어 가혹한 무정부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그 무정부 상태는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준 반면, 한 꿈을 내게 심어 준 것도 사실이다. 아버지와 아버지로 대표되는 재산과 의무로부터의 해방. 계급과 인종차별의 붕괴……(오족협화(五族協和)라는 거짓 슬로건을 나는 마음속으로부터 믿고 있었고,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는 일본인의 행동에 강한 증오와 모욕을 느꼈다.)¹³⁾

아베 고보가 품게 된 꿈이란 무엇이였을까. 어쩌면 아베 고보는 이때부터 작가의 길을 꿈꾸었는지도 모른다. 부모의 희망대로 의사인 부친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려고 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패전 후 모든 가치가 뒤바뀌는 상황을 체험하고 나서 작가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닐까. 1948년 3월에 도쿄의대를 졸업하지만 인턴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창작에 전념하고 만다. 이미 첫 장편소설 『길 끝난 곳의 이정표에』가 발표된 후이고, 전후 예술혁명의 거점인 「요루노카이(夜の会)」가 결성되었다. 이렇듯 아베 고보는 패전 후 일본으로 귀환해 오면서 착실히 작가의 길을 준비했다고 할 수 있다.

위 인용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와 아버지로 대표되는 재산과 의무로부터의 해방’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아버지인 아베 아사키치(安部浅吉)일 것이다. 장남인 아베 고보에게 있어서는 가업을 이어야 된다는 부담, 부모 부양 부담 등이 현실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그 부담으로 해방되었다는 것은 솔직한 심경의 토로였을지도 모른다.

또 하나 ‘아버지’로 대치 할 수 있는 ‘일본’을 생각할 수 있다. 어린 시절 만주국에서 보낸 아베 고보는 당시 만주국의 슬로건인 오족협화(五族協和)와 왕

13) 아베 고보 자필 연보(『新鋭文学叢書2 安部公房集』筑摩書房, 1960) p.278

도락토(王道樂土)를 고스란히 믿으며 자랐다고 했다.¹⁴⁾ 그러나 그것이 한꺼번에 깨진 순간이었다. 일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다. 만주국의 실체, 만주국가라는 공동체를 비롯하여 그 모든 것이 허위임을, 게다가 일본이 철저히 가해자임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결국 무언가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일본’에 대한 의무와 귀속으로부터의 자유를 ‘해방’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듯 아베 고보에게 있어서 만주체험과 패전체험은 아베 문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으며, ‘무능력한 아버지’ 상(像) 역시 이러한 체험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参考文献】

- 『安部公房全集002』新潮社,1998
 『安部公房全集012』新潮社,1998
 『飛ぶ男』新潮社, 1993.
 『新鋭文学叢書 2 安部公房集』筑摩書房, 1960
 『벽』 이정희역, 위덕대학교출판부, 2001
 佐々木基一編 『作家の世界—安部公房』番町書房, 1978
 大槻義彦 『超能力ははたしてあるか』講談社, 1993
 栗崎ゆたか 『超能力』心交社, 1995

14) 自筆年譜(『新鋭文学叢書 安部公房』筑摩書房, 1960) p.278.

要 旨

しばしば安部公房の小説に描かれる家族というものは、父子、あるいは母子だけの場合が多い。どちらかの片親が欠けているのだ。しかし、母子の関係をとおして筋立を展開するといった物語はあまりみえない。それに対して、子供のいない夫婦、あるいは一人暮らしの独身男性が設定される場合が多く、都市の変貌にふさわしい、新しいといえば新しい家族のタイプがよく描かれる。

父親の登場は短編小説にも見えるのだが、そのシチュエーションは父親と、視点人物と焦点化される人物を兼ねる「ぼく」との父子関係である。小説に登場する父親はおおむねくだめ親父>ばかりである。たとえば、『壁—S.カルマ氏の犯罪』に出てくる<都市>のパパであるユルバン教授は「ぼく」の胸中の壁を調査するために「ぼく」の胸を切り裂こうとする非情な科学者として造型されている。また、<田舎>のパパは「ぼく」が窮状に陥っても、なんとか理由をつけて「ぼく」を受け入れて助けようとする。この父親も父性愛に欠ける非情な父という造型とみなせよう。

このような父子関係の設定の背景にあるものは、父性が持つべき権威と抱擁力の欠如による<父なるもの>の喪失であろう。そしてそれにとまなう家族の崩壊である。

その上、安部公房の遺稿作品である『飛ぶ男』に出てくる父親は、超能力をもつ息子を利用して金儲けをしようと企んでいる。このようなくだめ親父>の造型について「飛ぶ男」と父親関係をめぐって考察してみる。

作品に登場する父親像のイメージには安部公房に脳裏に刻み込まれた満州での体験が重ね合わされていたにちがいない。かつて日本の植民地だった満州。華やかだった植民地での生活も、敗戦とともにその崩壊が安部公房の家族にも訪れた。小学校の時代、日本の教師—それは父親的な存在でもあっただろう—によって五族協和の理念を信じ込まれていた少年公房は、敗戦後、戦争によって破壊され荒廃した「日本」の現実をみて、国家や父親にたいする強い不信をおぼえるようになった。

満州体験と敗戦後の光景を眼のあたりにして、彼の内部で「国家」と「父なるもの」とが結び付き、それまでの父親像は解体していったのではなからうか。そのようなイメージは一貫して保存され、初期から遺稿作品においても、<父親>の造型はくだめ親父>として登場してい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安部公房、家族、父親像、だめ親父、満州体験、都市、田舎、超能力

투 고 : 2008. 11. 30
1차 심사 : 2008. 12. 13
2차 심사 : 2008. 12. 27